

2026. 1. 21

해외동향부 (제 7360)

■ 주요 뉴스: 미국-EU, 그린란드 관련 무역간장 고조 시장에서는 ‘셀아메리카’ 우려 증폭

- 미국 재무장관, 이르면 다음 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대법원 관세 판결은 지연
- 중국, 소비 진작 및 소득 개선 방안 추진.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 일본 재무상, 확장 재정 피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국채금리 상승은 지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그린란드 관련 EU와의 관세대립 등이 영향

주가 하락[-2.1%], 달러화 약세[-0.8%],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그린란드 갈등, 빅테크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EU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셀아메리카’ 본격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화 가치는 0.7% 상승, 엔화 가치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럽계 투자자들의 매도 확대 우려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및 일본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79.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80.7원, 0.18% 상승). 한국 CDS 강보합

		1/20일	1/19일	전일대비			1/20일	1/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96.9	휴장	-2.06%	국제 금리 10y	미국	4.29%	휴장	+7bp
	유럽	602.80	607.06	-0.70%		독일	2.86%	2.84%	+2bp
	중국	4,113.6	4,114.0	-0.01%		영국	4.46%	4.42%	+4bp
	일본	52,991	53,584	-1.11%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4,885.8	4,904.7	-0.39%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8.55	99.39	-0.84%	위험 지표	EMBI+	-	261	-
	유로화	1.1725	1.1646	+0.68%		VIX	20.09	18.84	+6.63%
	엔화	158.15	158.11	-0.03%		WTI유	60.34	휴장	+1.51%
	위안화	6.9608	6.9641	+0.05%	원자재	구리	581.3	583.1	-0.32%
	원화	1,478.1	1,473.7	-0.30%		금	4,763.4	4,670.9	+1.9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EU, 그린란드 관련 무역긴장 고조. 시장에서는 ‘셀아메리카’ 우려 증폭

- 미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나토 8개국을 대상으로 1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이에 따른 유럽의 반발과 미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린란드 문제가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
- 하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EU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보복한다면, 미국 역시 맞대응에 나서며 관세전쟁의 확산 국면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 다만, 이번 소동이 합리적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도 거론.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는 ‘그린란드 관세’가 적절하다고 강조. 동시에 이를 협상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부연
- EU측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행태에 강력 반발.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비판했고, 벨기에 베버르 총리는 미국에 맞서 EU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 WSJ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7일부터 930억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
- 한편, 시장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셀아메리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실제로 미국 달러화 약세, 국채 가격 및 주가 하락이 발생. 전문가들은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Evercore ISI). 특히 덴마크 연기금은 1억달러 미국 국채 매도를 계획
- 일부에서는 양측이 결국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때까지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 피력(Jefferies).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일본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시장 혼란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Bloomberg Economic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이르면 다음 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대법원 관세 판결은 지연

- 베센트 장관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었고, 이르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대법원은 관세 판결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4주 동안 휴원 기간에 진입. 이에 빨라야 2/20일 공표 가능

■ BofA 펀드매니저 조사, 주식 비중 '24년 12월 이후 최고. 조정 신호일 가능성

- BofA의 펀드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강세장 심리는 '21년 7월 이후 최고이며, 주식 비중은 '24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주가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충돌 등을 거론

■ EU, 보안 우려 높은 국가의 장비 사용 점차 중단. 독일 1월 경기기대지수는 상승

- EU의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산업에서 사이버 보안 우려가 높은 국가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 한편,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59.6을 기록, 전월(45.8) 대비 큰 폭 상승.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중국, 소비 진작 및 소득 개선 방안 추진.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금년 거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 성장을 제시. 특히 '30년까지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세울 것이며, 이는 서비스 부문이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 혹은 수치는 미제시
- 한편, 인민은행은 1년 및 3년 LPR을 3.0%, 3.5%로 동결. 소비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유동성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은행은 이에 신중한 모습. 시장에서는 당국이 위안화 가치의 안정과 이를 통한 자본 유입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

■ 일본 재무상, 확장 재정 피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국채금리 상승은 지속

- 카타야마 재무상은 여야 모두 소비감세 등 확장 재정을 주장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언.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
- 주요 국채금리는 재정 악화 우려로 급등. 10년물 금리가 큰 폭 올랐고(2.36% +9bp), 40년물 국채 금리는 집계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 돌파(4.23% +29bp)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 12월 잠정주택판매, 영국 12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유럽의 그린란드 방어, 미국 국채를 지렛대로 활용 가능 - Financial Times

(Treasuries could be Europe's best defense for Greenland)

-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은 보복관세와 외교적 압박 외에도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대규모의 미국 국채. 백악관은 가계·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 국채금리 하락을 원하지만, 재정 적자와 국방비 증가로 국채발행 확대가 불가피. 따라서 미국은 주요 투자자들을 자극할 여유가 없으며, 유럽은 중국보다 많은 2.8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 보유
- 유럽이 공적 연기금 등을 통해 미국 국채 비중 축소 신호를 발신할 경우, 시장의 약세 기대를 자극해 장기국채·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는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큰 부담. 유럽 최선의 방어선은 무역이 아닌 자본

■ 세계 경제, 과거 고성장 불구 미래 불확실성 증가. 과도한 비관은 경계 - Financial Times

(The world's economy — past, present and future)

- 팬데믹 이후 세계 GDP는 큰 폭 증가하면서 최근 5년 만에 10% 증가. 또한, 향후 성장률 전망도 고무적('25, '26년 3.3%, '27년 3.2%, IMF). 이는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역동적인 증시, AI 관련 낙관적 전망 등의 기대가 반영. 하지만, 미래 세계 경제는 미국의 국내외적 무분별한 행보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
- 예측 불가능하고 무질서한 트럼프 정책은 국내에서 법치주의·재정·금융안정(연준 독립성 훼손 포함)등을 위협하고, 대외적으로는 주요 국제기구(WTO, UN 등) 무력화 시도로 광범위한 혼란 초래. 그러나 양호한 경제 성장세, 낙관적인 AI 전망 등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비관론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중국의 對美 대응, 트럼프의 예측 불가 행보로 딜레마에 직면 - The Economist

(America's adventurism is unsettling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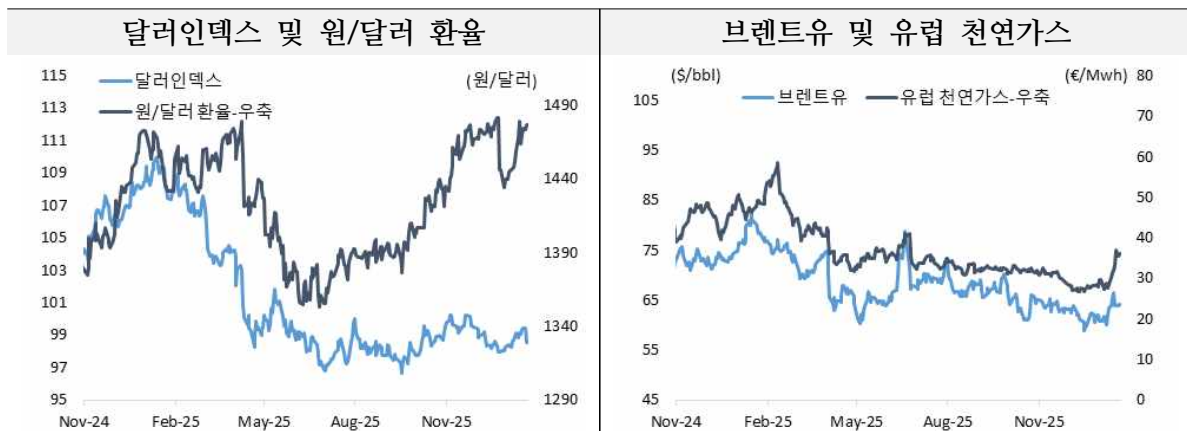
- 최근 트럼프의 강경한 대외 행보로 글로벌 정세는 불안정. 특히,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축출로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 축소가 현실화. 또한, 미국의 이란 정권 제재 등으로 중국은 이란産 원유수입이 어려움을 겪을 소지
- 이에 중국도 對美 강경책을 검토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 존재. 반면 對美 유화정책이 미국의 온건한 대응을 유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 중국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 시도를 이어가겠지만, 패권 국가인 미국의 압박으로 관련 성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 5% 달성했으나 이면에는 일종의 포템킨 경제 구축 - WSJ**
(China Hits the Economic Doldrums)
 - 중국 정부는 이번 주 초 '25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 5%를 달성 했다고 공표. 하지만, 수출 호황을 제외하면 국내 경제는 다음의 요인들로 포템킨 경제(Potemkin economy: 빛 좋은 개살구 경제)에 가깝다고 판단. 첫째, 소매판매에서 다양한 품목(전기자동차, 전자기기 등)이 일시적인 보상판매 보조금에 의존. 이는 과잉생산을 유도
 - 둘째, 정치적으로 우대받는(AI 등) 이외의 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자 감소. 셋째,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여파로 중산층 가계 자산 감소와 건설업계 불황이 지속. 넷째, 경제 전반에 걸쳐 높은 부채 수준이 만연하면서 과거의 일본화가 재연될 우려. 다섯째, 출산율이 1949년래 최저를 기록하고 최근 4년 인구가 연속 감소하는 등 인구 위기가 가속화
- **미국 경제, 유럽의 보복 관세 발효 시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 둔화 직면할 전망 - WSJ**
(What a Break With Europe Means for the American Economy)
- **미국 트럼프 재집권 1년의 경제정책, 장기적 경제 역동성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 - NYT**
(Trump's First Year Could Have Lasting Economic Consequences)
- **미국(보호주의)과 중국(글로벌 제조업 장악)의 新중상주의, 충돌이 불가피 - Financial Times**
(The dangerous triumph of neo-mercantilism)
- **연준의 독립성, 파월 의장의 저항에도 구조적인 약화 불가피할 소지 - 블룸버그**
(Powell's best efforts can't save Fed's independence)
- **금 가격 상승, 정치적 불안정 및 인플레이션 대비 수요 등으로 지속 예상 - 블룸버그**
(Ignore Gold's Message At Your Peril)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